

1. 다음 중 보험업법상의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운송보험계약 ② 권리보험계약
③ 간병보험계약 ④ 비용보험계약

2. 다음 중 보험업법상의 생명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생명보험계약 ② 연금보험계약
③ 퇴직보험계약 ④ 장기요양보험계약

3.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모은 것은?

- a.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b. 외국보험회사와 수입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 외국보험회사와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d. 외국보험회사와 단기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① a, b, c ② b, c, d ③ a, c, d ④ a, b, d

4.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그 회사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된다. () 안에 타당한 것은?

-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5.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 한 경우)

-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6개월

6.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은 것은?

- a. 화재보험 b. 해상보험 c. 자동차보험 d. 생명보험

- ① a, b ② b, c ③ a, c ④ c, d

7.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기 위한 요건으로 타당한 것은?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제외)

- ① 이사회 의결
② 주주총회 의결
③ 감사위원회 의결
④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8. 보험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9.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최소 인원수로 타당한 것은?

- ① 50명 ② 100명 ③ 200명 ④ 300명

10. 다음은 보험안내자료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④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11. 보험업법은 일정한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여기의 일정한 모집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회사의 임직원 ② 보험설계사
③ 보험대리점 ④ 보험중개사

12.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기한으로 타당한 것은?(당사자 사이에 이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③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13. 보험회사가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의 한도를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 ②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 ③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 ④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0,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14. 다음 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 ②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 ③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 ④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15.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②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③ 보험요율의 적정성 판단
- ④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16. 2014년 개정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였다.
- ② 중복보험 통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법정하였다.
- ③ 상호보험 외 대표적 유사보험인 공제관계 등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 보험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④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17. 다음 ()안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가)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나)할 수 있다.

- ① (가) 1, (나) 해지 ② (가) 1, (나) 취소
- ③ (가) 3, (나) 해지 ④ (가) 3, (나) 취소

18. 다음중 판례상 약관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주운전자 고지의무제도
- ② 가족한정특약
- ③ 이혼시 종피보험자자격상실에 관한 조항
- ④ 유상운전면책조항

19. 다음 판례의 ()안에 들어갈 약관해석방법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에서는 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甲 보험회사는 병원에 직접 乙의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3년 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함께 1억 1,400만원의 암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乙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③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④ 객관해석의 원칙

20.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가액이 곧 피보험이익의 가액이다.
- ②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당시 당사자 사이에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아니한 보험으로서,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 단순한 초과중복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초과중복보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21. 인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에서와는 달리 인보험에서는 정액보험이 문제되고 또 보험수익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보험자대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 ②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 다수의 견해이다.
- ③ 인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그 발생시기만 불확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는 다르다.

2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다.
- ② 지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계약이라고 해야 한다.
- ③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④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법인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없다.

23.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병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의 결과 입원·수술 등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②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은 무관하다.
- ③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④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② 최초보험료가 미지급되어 계약해제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부활청약에 대해 거절할 수도 있다.
- ④ 부활의 청약은 해지환급금의 수령 후에는 할 수 없다.

25.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보상방식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③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장애가 있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6.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피보험이익이 같아야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
- ② 수 개의 보험계약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될 수 있다.
- ③ 상법은 보상책임의 내용으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27.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손해방지비용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포함된다.
-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효과적으로 손해방지 감소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효과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③ 손해방지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험자를 위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식할 필요는 없다.
- ④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28. 인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목적은 사람이다.
- ② 인보험계약 중 질병보험 계약은 약관만에 의해 규율된다.
- ③ 인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9.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이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③ 단체보험은 그 성격이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에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0.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특정인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지정, 변경권은 일종의 형성권이지만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법인이나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31. 고의사고에 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보험계약자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2.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손해방지에 대해 보험사는 지시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 ③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위반의 효과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판례상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5.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 ② 보험약관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보험약관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6.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②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운송의 노선을 변경하여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 ③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 ④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한다.

37.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 ② 보험기간의 개시와 관련하여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荷物の 船積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며,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이 완료되었을 때에 개시한다.
- ③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38. 보험위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일부보험의 경우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
- ③ 보험위부는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는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④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39.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② 손해방지의무는 손해발생의 방지와 함께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③ 방어비용은 제3자 측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의 성격상 당연히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 ④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40. 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②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1. 다음 중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 ① 계약자유 원칙
- ② 과실책임주의 원칙
- ③ 소유권절대의 원칙
- ④ 무과실책임주의 원칙

42. 다음 중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 ② 법률에는 조약이나 자치법규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관습법은 사회에서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명인방법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43. 甲이 승용차 운전 중 임산부 乙을 치었는데, 태아 丙은 교통사고의 결과로 불구가 되어 태어났다. 이 경우 태아 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태어난 후에 甲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교통사고 발생은 권리능력이 없을 때이므로 아무런 청구권도 없다.
- ④ 어머니 乙이 태아 丙의 손해를 자기가 입은 것으로 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44. 다음 중 가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의 실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소도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 ② 가주소는 특정행위를 위해서만 주소로 본다.
- ③ 가주소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 ④ 일단 가주소가 정해지면 본주소는 배척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5.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 ① 최후소식 시 ② 실종선고 청구 시
- ③ 실종기간 만료 시 ④ 실종선고 시

46.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우리민법이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요지주의 ② 도달주의
- ③ 발신주의 ④ 표백주의

47. 甲은 자가 없어 조카 乙을 양자로 삼았으나, 입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출생신고는 무효이고 다시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출생신고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는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출생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시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양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48. 다음 중 소급효가 있는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종선고의 취소
-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④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49.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로만 묶어진 경우는?

① 상속의 포기	② 혼인	③ 채무의 면제
④ 취소	⑤ 인지	⑥ 유증

- ① ① ③ ② ① ③
- ③ ② ⑤ ④ ③ ⑥

50. 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도는 제척기간에도 인정된다.
- ② 소멸시효는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경감할 수 있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다.
- ③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하나, 제척기간으로 인한 것은 불소급이다.
- ④ 제척기간은 소송법상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한다.

51. 법인보험중개사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비율
- ② 모집조직 및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설립 이후의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과 중개수수료의 지급회사별 총액
- ④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2. 다음 중 보험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취인의 상호, 명칭, 성명
- ③ 보험의 목적과 그 가액, 보험가입금액
- ④ 중개수수료 및 영업보증금

53.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융감독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보험중개사가 자기계약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 보험중개사가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대신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는데 그칠 수 있다.
- ③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에 그쳐야 한다.
- ④ 청문회 개최 등으로 취소가 늦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보험중개사가 해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4.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때 고려할 사항으로 보험업법이 명확히 정하는 것은?

- ① 겸영금지의 취지
- ② 금융산업간 경쟁력 제고
- ③ 불공정거래 가능성
- ④ 금융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현 가능성

5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위탁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손해액을 영업보증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보험중개사가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그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설립허가를 할 주무관청은 금융감독원이다.
- ④ 보험중개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보험업법상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6. () 안에 들어갈 말로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 명단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① 적격성심사를 거친 대주주 또는 자회사인 법인보험중개사의 모회사의 대주주
- ② 과점주주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
-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 보유자 또는 최다지분보유자

57.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가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 보험중개사는 중개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험중개사는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으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을 수 없다.

58. 다음 중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59.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보험중개사의 최저영업보증금은 1억원이다.
- ② 법인보험중개사의 최저영업보증금은 3억원이다.
- ③ 법인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최대한도는 100억원이다.
-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최근 2개 사업년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60. 보험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장부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